

성보관리 새 사업 '난망'

조계종 종회 '문화부 요구안' 30%만 확정 무형문화·북한성보 조사등 아예 편성 안해

내년도 조계종 성보문화재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신규사업예산이 전면 삭제돼 성보문화재 보존관리에 우려를 낳고 있다. 미흡한 정부의 문화재 지원 속에 정착 성보 보존관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조계종은 11일 예산종회에서 성보문화재 관련예산을 1억9천1백78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문화부가 원래 요구했던 성보관련 요구액 6억4천5천원을 기획실이 전체의 40%수준인 2억3천4백92만원으로 축소하고, 종회에서 또 4천3백14만원을 삭감한 액수. 성보관련 총예산은 '97년의 9천1백73만원의 2배가 넘는 1

억9천여만원으로 늘어났지만 문화부가 주요사업으로 계획한 불교무형문화재·북한지역성보실태·사지정밀지표조사 등이 모두 무산돼 관계자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당초 문화부(부장 원화)가 요구한 성보관련 예산의 주 내용을 보면 성보실태조사 1억6천6백67만원, 사지조사 1억3천2백56만원, 성보보존위원회 1억4천8백만원, 성보관리 4천1백33만원, 성보전시관 3천3백15만원, 북한지역성보현황조사 1천2백62만원, 불교무형문화재조사 2천5백56만원 등. 이중 성보실태조사 항목만 올해보다 3천만원이 늘어났

을뿐 신규사업으로 계획했던 종단사찰의 성보현황조사, 북한지역 성보문화재 현황조사, 전국불교관련 지정문화재 현황 파악, 사지정밀지표조사, 성보관리연수자교육, 성보전시관 및 박물관 건립추진 기초사업, 무형문화재성보실태조사 등의 예산이 전부 삭제됐다. 이중 북한지역성보현황조사는 통일시대를 앞두고 북한지역 문화재, 특히 불교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사안임과 동시에 남북문화교류의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존대책이나 전수

자 양성방안은 엄두를 내지 못하더라도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현실에서 종단차원에서의 무형문화재실태조사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장기적인 사지발굴

및 복원을 위한 사지정밀지표조사도 무산돼 올해의 의욕적으로 추진돼 온 폐사지조사가 예산부족으로 일회성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화부가 한꺼번에 신규사업을 대거 내놓기보다는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하고 기획실과의 사전 조정에서도 이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윤기석 기자

◇조계종 성보관련 예산 비교

내 용	97년도 예산	98년도 예산	
		요구안	확정안
성보실태조사	50,000,000	166,670,000	95,580,000
재단사찰의 성보현황 조사	0	28,540,000	0
북한지역 성보문화재 현황조사	0	12,620,000	0
전국불교관련 지정문화재 현황파악	0	23,820,000	0
사지조사	10,000,000	24,100,000	15,000,000
사지정밀지표조사계획	0	108,461,000	0
성보관리자연수교육	0	35,300,000	0
성보보존위원회	30,000,000	100,480,000	62,360,000
성보관리	1,700,000	41,330,000	18,840,000
성보전시관 및 박물관 건립추진 기초사업	0	33,155,000	0
무형문화재실태조사	0	25,569,000	0
총계	91,700,000	600,045,000	191,780,000

북돋기 광주불교 합창예술제

30일 광주남도예술회관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명)가 주최하는 '북돋기' '97 광주불교합창예술제'가 30일 오후 5시 광주남도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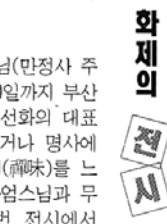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광주·전남북 지사가 후원하는 이번 예술제에는 합림사 화엄사 중심사 한마음선원 선덕사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6개 합창단이 '연화의 세계' 반

야심경 '빈손' 등 찬불가를 음성공양하고 노래로 포교하는 정음송(원광대 음악학과)과 김용철·박초향(국악인)씨와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등이 찬조를 연다. 이번 예술제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현재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동포와 귀순자모임 '남순지정회' 돕기 성금으로 쓰여진다. (062)376-3224, 375-9986

화엄·무관스님 달마도 전시회

23-30일 부산 용두산갤러리

화엄스님(김해 동림사 주지) 무관스님(만장사 주지) 2인의 달마도전시회가 23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용두산 갤러리에서 열린다. 달마도는 선화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근엄 또는 파안대소하거나 명사에 잠겨있는 모습 등 여러 모습으로 선미(禪味)를 느끼게 한다. 화엄스님과 무관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오랜 선수행에서 나온 능숙하고 탁속한 필치로 그린 묵화와 채색화 달마그림 총 60여점을 선보인다.



화제의 전시

이요한씨 '법화경 108폭사경전'

22-28일 조계종총무원 불교회관

법화삼부경 8만4천여자를 108폭 병풍에 담아 화제를 모았던 증경 서예가 이요한씨(50)의 '법화경 108폭 사경전'이 22-28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개최된다. 경면투사를 이용, 법화경 한자한자에 불심을 담아 해서체 소자로 쓴 이번 병풍은 필했을 때의 길이가 무려 55m. 세계최장의 불교경전 병풍으로 세계기네스북의 공인준비를 받기 위한 출원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밖에도 부모은중경 반야심경 등의 사경과 '心外無法' 등 서예작품들이 전시된다.

경기민요 인간문화재 이춘희씨 지정

문화체육부는 11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춘희씨(50·국립국악원 경기민요 지도위원·시진)를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했다. 89년 보유자 후보로 선정된 불자 이춘희씨는 80년 후 인비취씨의 전수생으로 경기민요를 전수했다.



이춘희씨

"2천여 관객 갈채에 힘솟아요"

가흥빈가합창단 정기연주 지휘 장일남 교수

"2천여명 가까운 불자들이 참석해 연주를 듣고 환호하는 것을 보니 음악포교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난해 12월 불교방송 가흥빈가합창단의 음악감독으로 부임 후 첫 자체 정기연주회를 11일 예술의전당에서 가진 장일남교수(한양대 작곡과·65)의 지휘는 가을밤 음성공양의 그윽한 향취를 한층 깊게 해 주었다. 장교수는 "경연에 나오는 가흥빈가합창단의 이름만 듣자마자 기쁨을 널리 전파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흥빈가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기쁨을 널리 전파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심시심 <107>

만나면 물만 길어 흘러

湖南遠客路悠悠 (호남원객로유유)
今日留我共逸遊 (금일유공공일유)
峽氣搖蕩萬層夏 (협기요동만층하)
泉聲透竹疑秋秋 (천성투죽각의추)
新詩驚處驚人眼 (신시사경경인안)
妙法談時點石頭 (묘법담시점석두)
別後他年重會約 (별후타년중회약)
碧松深谷水長流 (벽송심곡수장류)

호남의 먼 그대네 길도 유유허더니
오늘이야 지팡이 멈추고 함께 노닐다
산기는 처마 에워싸니 이제 막 여름인데
대숲 뚝는 샘 소리에 가을인가 의심하다
새로운 시 읊 때마다 사람 놀래고
묘법 말씀 할 때에는 돌머리도 끄덕여져
이별 후 다음 해 다시 모일 약속은
푸른 숲 깊은 골에 물만 길이 흐르겠지

'지리산 벽송암 해원대사에게 차운'(次智異山壁松庵海元大師)하는 시이다. 지은 이는 대원대사(大圓大師)이다. 대사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지만 대략 1714년 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사의 유집인 <대원집(大圓集)>의 서문에 보면 대사가 15세 때에 무신난(戊申亂)을 만나 군문에 응모하여 남한산성을 지키는 공이 있다 하니, 무신난은 영조 4년(1728)의 이인좌의 난을 말한다. 이 시는 시의 구두를 법도에 맞추려는 의도가 짙다. 먼 길로 서로 떨어져 있다가 오늘은 함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을 시작으로 하여, 만난 지금의 계절이나 주변 경관을 말하면서 상대방의 인간적 면모와 다시 만날 기약을 예약하면서 끝맺고 있다. 수사의 흐름은 만나고 이별한다는 시간적 연속성의 수평적 직선이다. 호남 평의 면 길에서 와서 노닐게 되는 지금, 여름철의 산 기운이 주변을 에워싸지

만 시냇물의 시원함에는 가을이 이미 왔는가 의심하게 한다. 이 순간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시가 아니면 법리의 오묘함이다. 놀릴 만한 시구에서 눈이 다시 트이고, 새로 깨달게 되는 진리의 말씀에 돌 같은 이 머리도 열리게 된다는 자신의 결승과 상대방의 칭찬이 무리 없이 맞물려 있는 수법이다. 만나면 이별하게 되는 것이 상리이니 다시 만날 기약으로 끝맺는 것이 일상의 결론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묘하다. 약속이란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는 것이 또한 상식일 것인데, 여기서는 장소라 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솔바람과 물소리이다. 푸른 숲은 향시 푸르고 물은 향시 흐른다. 또한 그것은 깊은 산 어디에도 있는 경관이다. 그러기에 이 시의 결론은 이런 면에서 묘미가 있다. 향시 푸른 숲이나 길이 흐르는 물처럼 이별이 이별이 아닌 만남의 상존이라는 암시인 듯하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대구 문화재지킴이모임 '발족'

'한사람 한유적' 운동 '안내관 세우기' 등 전개

국내 최초의 '대구 문화재지킴이 시민모임(공동대표 김계숙·최인숙)'이 14일 국립대구박물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찾아내고 각종 개발공사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문화재를 시민의 손으로 지키자는 취지에서 구성된 문화재지킴이 시민모임은 영남대 박물관 문화강좌를 7년째 수강하고 있는 김계숙대표를 비롯 주부, 학생, 회사원 등 1백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모임은 △한사람 한유적 지키기 △유적안내관 세우기 △유적지 주변 청소 등 문화재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한편 문화재교육 및 답사를 정기적으로 마련,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계숙 공동대표는 "문화재는 개발의 걸림돌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찾아내고 지킨다는 각오로 시민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박천수교수(경북대 고고인류학과)가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문화재보호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강연회도 마련됐다.



◇인해시상을 선양하기 위해 백담사 민해기념·교육관이 문을 열었다. 사진은 민해기념관 헌판식 모습.

백담사에 '민해기념관' 개관

유물·유품 등 3백여점 전시...교육관도

만해 한용운스님의 출가본찰이며 <님의 침묵> 등 대표작들을 집필한 유서깊은 설악산 백담사에 스님을 기리는 기념관과 교육관이 9일 개관됐다.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주지 마근)에 문을 연 민해기념관은 총 110평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전통한옥건물. 이 전시관에는 정보삼판장이 기증한 <님의 침묵> 초간본을 비롯 1백여 판본과 <불교유신론> <불교대전> 등 만해스님 육필본과 한시시집, 글씨, 관련 사진자료 등 만해스님관련 유품과 유물 3백여점이 상설 전시된다. 정보삼판장은 "앞으로 독립운동, 문화, 부처님오신날 등 주제와 시기에 따른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만해 스님 흉상이 봉안된 민해교육관(관장 김재홍)은 120여평의 목조건물로 앞으로 만해시인학교, 강좌, 수련회 등이 열려 자유 평등 개혁 생명 진보 등 만해정신을 계승하고 오늘에 선양시키는 민족정신을 수련하는 근본도량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개관식은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조계종 종회의장) 오현(신홍사 회주) 도후(신홍사 주지) 원화(조계종 문화부장) 스님 등과 명호근(만해사상실천선양회장) 김진선(강원도 행정부지사)씨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3회 타종, 만해상제막, 헌화, 개관사(명호근), 법어(월주스님), 치사(설정스님), 축사(김진선), 만해시 낭독(김재홍), 위촉패 및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제=이경숙 기자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좋은 책 할인 판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그동안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책만을 엄선하여 '할인 판매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만물이 제자리로 향하는 이 깊은 가을, 여시아문에서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경희대 문화회관 3층 여시아문

한가로운 도인의 길 김달진역주/세계사/ 8000 → 5000원	밀교의 역사와 문화	놀란둘리나 레이슨/ / 3500 → 2500원	김정후/ / 4800 → 3000원
태고집 설서 권/ / 8000 → 5000원	우리토미 모토히로 외/ / 5500 → 3000원	환상의 타임머신 손영성/ / 3000 → 2000원	미륵상생경 외 경전연구모임회/ / 2500 → 1500원
선이란 무엇인가 장순용 역주/ / 10000 → 6000원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	금강경 경전/ / 4500 → 3000원	아미타경 외 / / 2500 → 1500원
대승기신론 마명/ / 8000 → 5000원	시토 미즈오/ / 4200 → 3000원	중화의 지혜 중국인종사상연구회/ / 5500 → 3000원	옥야경, 선생경 외 / / 2500 → 1500원
한산시 김달진 역주/ / 10000 → 6000원	원호의 인식과 논리 신현숙/ / 3500 → 2000원	선정생수의 전개 한보광/ / 5000 → 3000원	유마경 / / 2500 → 1500원
동양의 지혜와 선 심재홍/ / 12000 → 6000원	불교의 현대적 조명	붓다와 다르마 BR. 암베르카르/ / 5500 → 3000원	금강경, 승만경 / / 2500 → 1500원
노자 그 불교적 이해 감산대사/ / 10000 → 6000원	교수불자연합회/ / 5500 → 3000원	인식과 초월 핫토리 마사야키 외/ / 4300 → 2500원	지장본원경 외 / / 2500 → 1500원
자아의 책 박철화 옮김/ / 4000 → 2000원	인도 불교의 역사 히라카와 아키라/ / 6000 → 3000원	뜨뜨라 불교 입문 SB. 다스굽다/ / 4000 → 2500원	본원행원경, 관세음보살품 외 / / 2500 → 1500원
부처님이 올 수 없는 땅 심재홍/ / 4000 → 2000원	인도 불교 사상사 에드워드 르즈/ / 5500 → 3000원	중국 중세불교 사상 비판 임계유/ / 4500 → 2500원	법구경, 사십이장경 / / 2500 → 1500원
한 그루의 우주 나무와 신화	중국 불교 上 KS 케네스 헨/ / 5000 → 3000원	대승불교의 사상 유대야 요시무미/ / 3500 → 2000원	조상공덕경, 조탑공덕경 외 / / 2500 → 1500원
김일규/ / 4000 → 2000원	묘법연화경 광우/ / 8000 → 5000원	천태 법화의 사상 티무라 시로우 외/ / 4000 → 2500원	부모은중경 외 / / 2500 → 1500원
보살은 누구인가 목우/ / 4500 → 2000원	북한의 절과 불교 정태혁 외/ / 5000 → 3000원	일본 불교사 이영자 옮김/ / 5000 → 3000원	선문선답 조요원/ / 5000 → 3000원
산거리기 김달진/ / 3500 → 2000원	법구경 에피소드 정태혁/ / 4500 → 3000원	화엄경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불교시대사/6500 → 3500원	행복한 마음 김정성/ 김영사/ 5900 → 4000원
한·중 불교 문화 교류사	논어와 선 한도 다이가 외/ / 4500 → 3000원	대승기신론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 / 4300 → 2500원	
황유복 외/ 가치/ 15000 → 8000원	푸른 산빛을 깨치고 전보삼/ / 4500 → 3000원	불교학개론 강의실 1, 2 권외/ / 4500 → 2700원	
초서자전 권집부/ 가치/ 30000 → 15000원	불교와 그리스도교 히로사치야/ / 3300 → 2500원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라	
중국 불교 사상사	소승 대승 히로사치야/ / 4300 → 3000원	조요원/ / 4500 → 2700원	
키우라 키요타카/ 민족사/ 4000 → 3000원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